

[한수달] 국어 Preview Training

[2주차 문학 수업용 해설]

[이승모T의 수업용 해설 활용법]

- ① 이 해설은 현장 강의의 해설을 글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S1]을 풀고 나서 이 해설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가지면 됩니다.
- ② 해설이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한수 온라인)
- ③ 현대시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개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시면 수능 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반말로 쓰는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길이가 너무 길어짐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2주차] 문학 수업 지문

연습 훈련 3. 우포늪 왁새(2019학년도 6월 모평)

[수업 내용 주요 사항]

- ① 현대시는 해석할 수 없다.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해석하지도 않는다.
- ② 선택지를 보고 판단할 때에도 해석하지 않는다.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③ 다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차분히 읽는다. 연 구분이 있으면 연의 의미 단위이고, 연 구분이 없으면 문장이 의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 ④ 시는 정서다.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표시해주면 좋다.
- ⑤ 반복되면 중요하다.

[중요] '수능'에서 현대시 선택지의 판단

정답 : 사실관계로 해석이 없어도 판단 가능

오답 : 해석을 요구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를 적극적으로 활용.

- ⑥ 시인과 독자에게 있어 상황은 같다. 감수성이 다르다. 즉 같은 상황이어도 느끼는 감수성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할 수 없다.

[지문 해설]

이 시가 출제되면 해석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는 이 시를 차분히 읽을 수 있을 뿐, 무슨 내용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만약 이 시가 해석이 된다면 이 시를 알고 있거나, 이 시를 쓴 시인일 것이다. 일단 의미단위로 끊어가며 차분히 읽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 [A] 오늘은, 왁새* 울음 되어 우향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볼 질러 놓는다
- [B]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 [C]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 [D]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 저 왁새들
└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 [E]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배한봉, 「우포늪 왁새」 -

*왁새 : 왜가리의 별명.

*동편제 : 판소리의 한 유파.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 [A] 오늘은, 왁새* 울음 되어 우향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볼 질러 놓는다
----- 끊어 읽기

- [B]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 끊어 읽기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 끊어 읽기

- [C]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 끊어 읽기

- [D]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 저 왁새들
----- 끊어 읽기

----- 끊어 읽기

- [E]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끊어 읽기

- 배한봉, 「우포늪 왁새」 -

*왁새 : 왜가리의 별명.

*동편제 : 판소리의 한 유파.

[지문, 가능한 것들]

① 제목 확인

- 제목으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제목은 주된 대상인 경우가 많다. 즉 이유는 몰라도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면 중요할 것이다.

② 소리꾼 → 왓새 울음(이 정도의 상황 파악은 가능하다. 단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다.)

③ [A]의 '오늘은'이라는 표지는 [A]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언급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④ 혈혈단신, 슬픔에 체크. 경서는 표시해두는 것이 좋다.
- 나는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차분히 읽으면서 끊어가면서 그냥 보이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간 것뿐이다.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상황은 같다. 감수성이 다르다] / <보기> → 지문

지금부터 할 것은 수능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정확히 알면 어떻게 되는 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자와 시인은 상황은 같지만 감수성의 깊이가 달라 해석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시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와중에 평가원에서 보여주는 <보기>의 의도대로 시를 100% 이해해 볼 것이다.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시야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보되,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설명이다. 다음은 <보기>의 내용이다.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를 들으며(현실, 상황) /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상상, 감수성)

이 말이 사실은 '상황은 같다. 감수성이 다르다.'를 제대로 보여주는 문장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능 끝나고 친구들과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갔다고 치자. 그 와중에 새 몇 마리가 울면서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대개 새 날아가는 건 크게 신경 안 쓰고, 풍경이 예쁘니까 구경하면서 한잔 하자거나, 아니면 셀카를 찍어 인스타에 올릴 것이다. 문겠다. 혹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판소리 소리꾼의 '한'을 떠올려 본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강력하게 시인이 되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거의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우리는 이렇게 때문에 이 시를 읽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풍경 좋은 곳에서 새가 날아가는 상황 자체가 같아도, 우리와 시인들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은 <보기>의 의도대로 한 번 이 시를 100% 분석해 보겠다.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①예술의 경지와 ②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이 시의 주제)

화자 →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 → 소리꾼의 절창 연상

여기에 내가 세로로 선 하나만 그으면, 바로 평가원의 의도대로 이 시를 100% 감상할 수 있다. 바로 왓새 울음소리와 소리꾼의 절창 사이를 그어버리면 된다.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현실이다. 소리꾼의 절창은 상상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 시에서 우포늪이나 왓새 얘기 나오면 현실인 거고, 소리꾼 얘기 나오면 상상인 거다. 즉 [A]는 현실이다. [B]는 상상이다. [C]는 상상이다. [D]와 [E]는 현실과 상상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다. 사실 이렇게 감상하는 것이 <보기>의 의도대로 감상한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실제 시험 때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중요] '수능'에서 현대시 선택지의 판단

정답 : 사실관계로 해석이 없어도 판단 가능

오답 : 해석을 요구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스를 적극적으로 활용.

연습 훈련 3번 문제 답 : ⑤

①	O	[A]에서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가 퍼지는 우포늪의 모습을 보며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던 한 소리꾼을 연상하고 있다.
②	O	[B]에서 화자는 득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떠돌아다녔던 소리꾼의 삶의 비애를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염을 흔들곤 했다'라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O	③번 고른 학생들은 선택지를 다 봤는데 아마도 답이 안 보여서 생각하다보니 ③을 고르게 됐을 것이다. 생각이 많다면 ③을 고른다. 선택지 다시 읽고 [C]로 돌아가서 읽어 보자. [C]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더라. [C]는 화자의 경서가 아니네. 답이다. 이렇게 고른 학생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 시의 모든 구절은 화자의 경서가 반영된 것이다. ③은 그냥 맞는 거다.
④	O	학생들에 따라 어떤 학생들에게는 감으로 판단이 되는 선택지이고 어떤 학생들에게는 가장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선택지이다. 문학적 감이 뛰어난 학생들은 사실 소목 장재 토폰마를 보자마자 현실적 공간이네 하고 내려간다. 이렇게 푼 학생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만약 판단이 안 되면 세모치고 내려가는 습관을 들이자. 이 선택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사실상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을 요구하는 선택지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소목 장재 토폰마를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 저 왓새들 [D]의 '동편제'는 판소리의 한 유파이다. <보기>의 진술에 따르면 소리꾼에 대한 내용은 우포늪에서 왓새를 보고 떠올린 연상이다. 따라서 '동편제를 넘어가는' 것은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장면이다. 화자는 '왓새들이 동편제를 넘어가는',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토폰마을'이라는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여 서술하고 있다.
⑤	X (정답)	사실 관계 + 개념어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사실 이걸로 끝난다. 여러분들이 볼 수능 시험엔 반드시 '대비'라는 말이 나온다. '대비'는 무조건 보게 될 테니 '대비'를 이렇게 알아두자. 대비 = 의미 있는 차이가 부각되는 것.(외우면 좋다.) '소리꾼의 절창'은 '왓새 울음소리'에서 화자가 연상한 것이다. '왓새가 내는 소리에서 '소리꾼'의 소리를 연상했다면, 이때의 '왓새'와 '소리꾼'은 대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번 선택지의 '사실적으로'라는 표현에 대한 판단은 해설을 쓰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소리꾼 영혼'이 상상적으로 떠올린 대상이며, '꽃잔치'를 무르익힌다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므로 '사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와, '꽃잔치'를 무르익힌다는 것은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을 묘사한 것이므로 '사실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 갈린다. 허나 이 역시 앞부분에 명확한 판단 지점이 있으므로, '애매하다' 정도로만 처리하고 넘어가도 괜찮다. 시험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보다 확실한 부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판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1주차] 문학 수업 지문

연습 훈련 4. 승무(2010학년도 수능)

[수업 내용 주요 사항]

- ① 현대시는 해석할 수 없다.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해석하지도 않는다.
- ② 선택지를 보고 판단할 때에도 해석하지 않는다.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③ 다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차분히 읽는다. 연 구분이 있으면 연의 의미 단위로, 연 구분이 없으면 문장이 의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 ④ 시는 정서다.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표시해주면 좋다.
- ⑤ 반복되면 중요하다.

[중요] '수능'에서 현대시 선택지의 판단

정답 : 사실관계로 해석이 없어도 판단 가능

오답 : 해석을 요구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를 적극적으로 활용.

- ⑥ 시인과 독자에게 있어 상황은 같다. 감수성이 다르다. 즉 같은 상황이라도 느끼는 감수성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할 수 없다.

[지문 해설]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미션을 줄 테니 이렇게 한 번 해보자. 많은 학생들이 답은 잘 고를 것이다. 다만 모든 선택지를 맞으면 O, 틀리면 X, 헛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로 판단해보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

1.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O / X / △)
- ②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O / X / △)
- ③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O / X / △)
- ④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O / X / △)
- ⑤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O / X / △)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끊어 읽기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 끊어 읽기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정서)

----- 끊어 읽기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 끊어 읽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신이어.

----- 끊어 읽기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 끊어 읽기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정서)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정서)

----- 끊어 읽기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 끊어 읽기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끊어 읽기

- 조지훈, 「승무」 -

[지문, 가능한 것들]

지문 읽으면서 가능한 상황 정도만 표시해 보았다. 연 단위로 가볍게 훑어 읽고, 이 와중에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체크하자. 다만 조금 더 예민하게 읽는다면, '서러워라'는 무녀를 지켜 본 화자의 정서이고, '두 방울(눈물)', '번뇌'는 무녀의 정서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구분하지 않아도 일단 차분히 읽으면 된다.

[알아야 할 것]

① 시간의 흐름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일새마다 달이 지는데

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 (O / X)

-----생각해보고 밑으로
당연히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다. 촛불이 녹는 밤이라는 것은 이미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달이 지는 상황 역시 시간이 흐르는 상황이 된다. 이것도 판단해 보자.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붙고
- 정지용, 「인동차」 일부 -

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 (O / X)

-----생각해보고 밑으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다. '도로'라는 단어 하나 때문이다.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붙었다는 것은 꺼졌다가 다시 불이 피워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당연히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② 하늘(달, 별...)을 쳐다보면.

자연(산, 강...)을 바라보면.

약속이다. 지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화자가 갑자기 길을 걷다가 하늘을 바라보거나, 하늘에 있는 달, 별과 같은 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지향하는 것이다. 즉 하늘은 지향의 대상, 혹은 지향하는 세계가 된다.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현재 무녀는 승무를 추다가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고 있다. 지향이다. 별빛은 지향하는 세계가 된다. 이걸 약속이니까 알아두자.

③ 청각적 이미지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판단해보자. 이 부분은 청각적 이미지인가?(O /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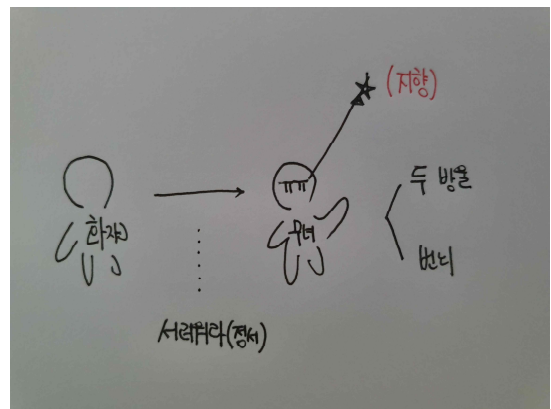
-----생각해보고 밑으로
보통 고전시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귀뚜리와 자규이다. 귀뚜리는 귀뚜라미이고, 자규는 소쩍새 즉 손바닥만한 크기의 새다. 물론 위의 밑줄 그어진 부분에는 듣는다거나 소리라는 말이 없지만, 사실 삼경이 넘어가는 밤에 귀뚜라미 같은 벌레나 손바닥만한 크기의 새가 우리 눈에 보일 리 없다. 즉 우리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약속하자. 밤에 귀뚜리나 자규 같은 것이 나오면 특별히 듣는다거나 소리라는 말이 없어도 청각적 이미지가 맞다. 이 와중에 꼭 이런 걸 묻는다.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당연히 맞다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역시 고전시가에도 정말 많이 나오지만, 밤에 귀뚜라미가 울거나 소쩍새가 울면 애상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임을 알아두자.

[상황은 같다. 감수성이 다르다] / <보기> → 지문

지금부터 할 것은 수능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정확히 알면 어떻게 되는 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자와 시인은 상황은 같지만 감수성의 깊이가 달라 해석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시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와중에 평가원에서 보여주는 <보기>의 의도대로 시를 100% 이해해 볼 것이다.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시야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보되,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설명이다. 다음은 <보기>의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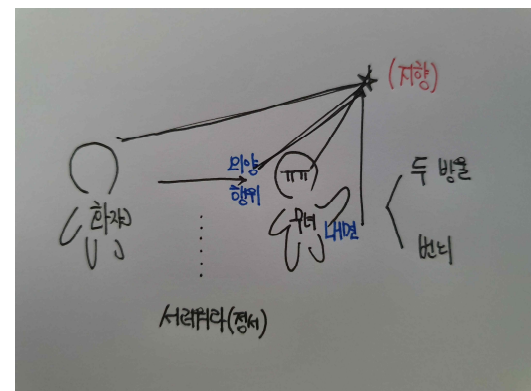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이미 시를 읽으며 파악했을 상황이다. 화자가 무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문을 읽었을 때의 살을 조금 붙여보면,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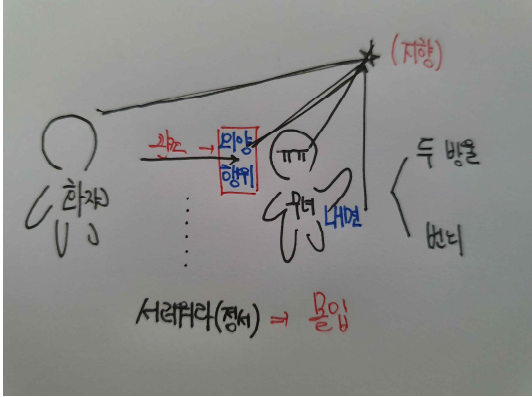
빛이 무녀의 외양과 행위,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켜보는 화자가 무녀의 외양과 행위, 내면세계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현대사라는 것을 감안할 때 빛이 내면세계를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잘 생각해보자. 화자는 무엇을 통해 외양과 행위를 보는 것이고, 무엇보다 무녀의 내면을 보는 것일까. 화자는 관조를 통해 무녀의 외양

과 행위를 보는 것이고, 무녀의 내면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보기>의 의도를 100% 이해한 상태의 그림을 보자.



우포늪 옥새와 사실 비슷하다. 결국 <보기>의 초점은 이 시에서 무녀의 외양과 행위를 나타내는 부분은 화자가 관조하고 있는 것이고, 무녀의 내면세계가 나타나는 부분은 화자가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 시의 1연이나 2연 같은 경우는 화자가 관조하는 것이고, 3연은 무녀를 보고 화자가 서러움을 느꼈다는 점에서 화자는 몰입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다.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는 시험 때 이렇게 평가원의 의도대로 100% 시를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없다. 작품을 100% 해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기>의 의도대로 접근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문제를 못 푸는가? 또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문도 해석할 수 없고, <보기>의 의도도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답을 고를 수 있다. 이것이 현대시 수능의 본질이다.

[중요] '수능'에서 현대시 선택지의 판단
 정답 : 사실관계로 해석이 없어도 판단 가능
 오답 : 해석을 요구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를 적극적으로 활용.

연습 훈련 4번 문제 답 : ③

①	O	암전된 무대에 조명이 하나 켜진 상황을 떠올리면 쉽다. <보기>에 '밤이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아마 상식선에서 당연하다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무대 공간의 중심에 있는 무녀에게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②	O/△	해설이라 동그라미를 쳤으나, 실전에서는 세모라고 해도 된다. 어차피 답은 확실하니까. 즉 평가원에서 현대시 <보기> 문제를 낼 때, 정답 선택지는 무조건 사실관계로 답이 나오고, 오답 선택지는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황촉불과 기우는 달이 하강과 소멸 이미지라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반드시 유한한 인간 존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가? 우리는 '방향'이 같으면 그때부터는 '정도'를 따지게 된다. 황촉불과 기우는 달 그리고 유한한 인간 존재는 분명 방향이 같은 말이다. 다만 황촉불과 기우는 달이 반드시 유한한 인간 존재인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까지 볼 수 있느냐하는 정도를 따지게 된다. 결론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다. 일단 방향이 같은데 이 실체를 규명하려고 한다가, 정도를 따지게 되면 잠시 멈추고 세모를 친다. 그리고 일단 내려가라. 수능에서는 정말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도를 따지게 하지 않는다. 다만 시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 전체의 내용. 즉 여승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번뇌에 빠져 그것을 승화시키기 위해 승무를 추는 것이라는 내용을 안다면 이 선택지가 확실하게 맞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③	O/△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단이 안 되면 일단 세모치는 게 맞다. 이것 역시 해석을 요구하는 선택지이다. 지금부터 실전에서 이렇게 못할 거 설명할 거니까, 그냥 읽어내봐라.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이런 느낌이면 세모치는 거다. 세모치는 것도 훈련해야 한다. 선택지 읽고, 6연의 '별빛'을 돌아가 그 연을 다 읽는다. 무녀가 하늘에 별빛을 쳐다보고 있다. 약속하나 하자. 하늘 혹은 하늘에 있는 것을 쳐다보면 시에서는 그것을 '지향하는 거다. 즉 번뇌가 가득한 무녀가 별빛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초탈의 세계를 환기한다는 건 방향 상 맞다. 근데 문제는 '승화로 이어지게 되는 걸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차분히 다시 읽어라. 승화로 이어진다고 했으니 6연 이후의 내용을 보란 얘기고, 7연의 '번뇌는 별빛이라.' 이 말을 해석 할 수 있어야 한다. '번뇌는 별빛이라.'라는 말은 번뇌가 별빛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즉 (-)가 (+)가 된 것이므로 승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단 실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것 역시 세모다.
④	O/△	③번 선지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번뇌는 무녀의 내면세계에 있는 것이며, 무녀가 지향하는 세계는 '천상', 즉 하늘이다. 그리고 무녀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무녀의 눈동자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별빛'이다. 이 모습을 도식화하자면 아래와 같다. [내면세계(번뇌)] ----- [별빛] ----- [지향하는 세계 : 천상] 따라서 '별빛'은 무녀의 '내면세계'와 '천상'을 이어주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⑤	X (정답)	<p>의미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따져보았다면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다. 근거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따져보겠다.</p> <p>1) 무녀의 낯빛 3연의 두 불에 흐르는 빛 = 눈물로 해석이 가능하면 낯빛이 기 보다는 눈물을 나타내는구나 하고 지웠을 것이다.</p> <p>2) 상승 이미지 약속이다. 흐른다는 것은 하강 이미지다. 두 불에 흐르는 빛을 눈물로 생각했다면 더욱 확실한 것이고, 흐르는 것이 상승 이미지일 수는 없다.</p> <p>3) 환상적 분위기 기억하자. 문학에서 환상적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비현실적 상황에서 쓴다. 쉽게 말해 fantasy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도 맞다고 보기 어렵다.</p>
---	-----------	---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